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통과 총력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 국회 행안위·법사위 의원실·전문위원실 방문 등 본격적인 활동 개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임 부지사는 지난 16일과 21일 양일에 걸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을 방문해 국회의원, 수석전문위원 등을 면담하며 전북특별법이 원활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했다.

특히 임 부지사는 22일로 예정된 행안위 법안소위 심사를 앞두고 16 일에는 법안 1소위 의원실을, 다음 날(23일)인 행안위 전체회의를 대비해 21일에는 나머지 행안위 의원실을 방문하는 등 전략적으로 건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또한 법사위 정성희 수석전문위원과의 면담을 통해 법사위 11월 및 12월의 일정을 청취하며, 상임위원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안 입법개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임상규 행정부지사가 국회를 방문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했다.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후의 계획 및 일정까지도 빈틈없이 챙겼다.

임상규 부지사는 “제대로 된 전북특별자치도 구현을 위해 지난 1년 여간 특별법공표부터 이번 전부개정안 마련까지 전북이 한마음으로 달려왔다”며 “실질적 권한과 역할을 부여할 수 있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반드시 연내 통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생명, 그린에너지, K-문화 등 전북의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살려 국가 핵심 정책의 실험 기지를 수행함으로써 ‘글로벌 생명경제’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도전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도는 오는 12월로 예상되는 전북특별법 전부개정안이 국회 분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지휘부를 중심으로 전방위 대국회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남원시, 향후 성장 잠재력 ‘인정’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서... 최경식 시장 대상 수상

남원시가 21일 충남 금산군 ‘다락원’에서 열린 제1회 대한민국 지방소생대상 시상식에서 ‘지역성장역량 대상’에 선정되며 최경식 시장이 대상을 수상하는 영광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본 상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한국 지방자치학회와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가 연구진으로 참여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의 생존전략 측정 지표를 개발해 제정한 상으로, 뉴스핌 등 3개 기관은 이 지표를 토대로 심의해 6개 부문에서 12개 시·군을 선정했으며, 남원시는 지역 성장잠재력 지표가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면서 전라북도에서는 최경식 남원시장 유일하게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경식 남원시장

이번 시상식은 2022년 인구수 기준, 행안부가 선정한 인구감소지역 89개 시군을 포함한 총 141개 시군(전국의 기초단체 중 수도권과 인구 50만명 이상 시 지역을 제외)을 대상으로 교수진의 연구를 통한 개발 지표로 인구학적, 사회학적, 경제학적인 다양한 자료가 고려된 자치단체 평가로 의미가 있다.

연구진에서 제시한 역량지표는 크게 △도시경쟁력 역량지표 △생활 활력 역량지표 △교육혁신 역량지표 등 총 3가지로, 남원시는 지역 경제력 및 생활 활력 역량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잠재력 측면에서 지역 경제력 역량이 0.9% 증가했고, 생활 활력 역량 또한 1.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잠재력이 있는 지역으로 분석됐다.

또한 2017년 인구수 8만3,275명에서 7만7,948명으로 지속적 감소가 나타나는 가운데에서도 경제성장 및 생활 기반 시설의 지속적 투자 정책을 펼쳐 향후 잠재력을 가진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최 시장의 노력이 일궈낸 성과로 민선 8기 최 시장이 시민소통위원회 발족 후 시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행안부 및 전북도와 긴밀한 소통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덕분에 성장잠재력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됐다는 후문도 있다.

한편 최경식 남원시장은 “국가에 산 확보 일정으로 시상식에는 참석하지 못해 아쉽지만 생각하지 못한 상을 받게 되어 매우 기쁘다. 오직 시민만을 생각하며 뛰어온 지난 1년 5개월의 노력이 이렇게 가시화돼 대단히 감사하다. 시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내년 국회의원 선거관리 예산 최저임금에 맞게 편성하라”

고창군공무원노조, 예산안 증액 요구 대국회 투쟁 돌입

고창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안남귀)이 정부가 편성한 선거관리 예산안에 반발하며, 예산안을 증액에 요구하는 대국회투쟁에 돌입했다.

이번 투쟁은 내년도 제22대 국회의원선거관리를 위해 정부가 편성한 투표사무원 수당 13만원이 2024년 시간당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턱없이 부족하여 최저임금에 맞도록 상향해달라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가 선거관리를 위해 2024년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투개표관리관 19만원, 투표사무원 13만원, 개표사무원 7.5만원, 투개표참관인 10만원으로 이 중 투표사무원은 14시간을

일하는데도 13만원인데 반해, 투개표참관인은 6시간을 일하고 10만원의 수당이 책정되어 있어 형평성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사전에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여 지난 2022년 11월 한국정당학회에 ‘안정적 선거관리를 위한 선거관리제도 개선방안연구’라는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선거사무를 진행할 인력확보가 필수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최저임금에 맞게 수당지급은 이루어져

야 한다는 결과를 도출했다.

이를 2023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정하면 투개표관리관은 24만원, 투표사무원은 18만원, 개표사무원은 1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하여 조응천·전재수·정희용 국회의원이 각각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선거사무원 수당 인상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모두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대국회 투쟁을 실시해온 정읍시공무원노동조합 김대원 위원장과 안남귀 위원장은 “최근 선거업무가 부정선거 의혹 지속 제기로 민원이 빈번해지고, 휴일 장시간 근무에 대한 정

당한 보상이 없는 노동이라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기피업무로 전락되고 있다. 같은 투표소에서 6시간 동안 선거과정을 지켜보고 10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참관인과 14시간동안 민원에 시달리면서 일하는데도 13만원이 지급되는 선거사무원이 있다면, 과연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라며 최저임금과 형평성에 맞는 선거사무 예산 편성을 요구하였다.

또한 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과 만남을 갖고 성명서 및 요구사항을 전달했으며, 지역신문 보도, SNS 릴레이 홍보 등을 하며, 선거수당 및 제도의 개선 정당성을 널리 알리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2024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 확정... 국비 9억9000만원 확보

4년 연속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최종 선정 쾌거

정읍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2024년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9억 9000만원을 확보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1종 이상의 신재생에너지원 설비를 일부 지역의 주택·건물 등에 설치해 전기와 열을 공

급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4년 6개 동(수성, 장명, 내장상, 시기, 초산, 연지) 일원에 총사업비 21억9000만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4년도 융복합지원사업은 지역주민들의 높은 참여 열기로 태양광 263개소 789kW 태양열 9개소 122.4㎡

△지열 8개소 140kW를 설치할 계획이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지역주민들의 에너지비용 절감에 이바지할 계획”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통해 에너지자립 기반 확충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 친환경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21년부터 이번 공모까지 4년 연속 공모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까지 태양광 설비 827가구 2481kW 규모를 설치했다.

올해는 431개소에 태양광 386개소 1158kW 태양열 30개소 306㎡ △지열 15개소 262.5kW의 2023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 칠보면 한우농가 의사환축 ‘음성’

방역본부 전화예찰 중 발견·정밀검사 의뢰

21일 정읍시 칠보면 한우농가(60두)에서 렙피스킨 의사환축이 ‘음성’ 판정을 받았다.

지난 20일 방역본부 전화예찰 중 의심축이 발견되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다.

전북도는 지난 18일 14차 확진판정

이후 삼일째 추가 확진이 발생하지 않았고, 현재 추가 렙피스킨 의심신고도 없다고 밝혔다.

이성효 동물방역과장은 “소 농가는 살충제 살포 등 구충 작업을 강화하고 렙피스킨 의심증상을 보이는 소가 발견되면 즉시 가축방역관에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